빅 브라더 (텔레비전 프로그램)

《**빅 브라더**》(*Big Brother*)는 네덜란드 언론 거물인 John de Mol이 만든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일정 기간 외부 세상과 단절된 채 텔레비전 카메라의 감시를 받는 큰 집에서 24시간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을 보여준다. 약 3개월 동안 12~16명의 참가자가 그 집에 들어간다. 최종 상금을 획득하려면 참가자는 정기적인 축출 투표에서 살아남아서 마지막까지 남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빅 브라더의 최초 판은 1999년 네덜란드 상업 방송 채널인 Veronica에서 방송되었다. 그 후로 이 방송 형식은 전 세계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되어 여러 가지 판으로 많은 나라에서 방송되고 있다.

**역사**

이 쇼의 제목은 영국의 [조지 오웰](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A7%80_%EC%98%A4%EC%9B%B0)의 소설《[*1984*](https://ko.wikipedia.org/wiki/1984%EB%85%84_(%EC%86%8C%EC%84%A4))》에서 유래됐다. 이 소설에서 '[빅 브라더 (1984년)](https://ko.wikipedia.org/wiki/%EB%B9%85_%EB%B8%8C%EB%9D%BC%EB%8D%94_(1984%EB%85%84))'의 의미는 사회학적 통찰과 풍자로 유명한 긍정적 의미로는 선의 목적으로 사회를 돌보는 보호적 감시, 부정적 의미로는 음모론에 입각한 권력자들의 사회통제의 수단을 말한다. .[[1]](https://ko.wikipedia.org/wiki/%EB%B9%85_%EB%B8%8C%EB%9D%BC%EB%8D%94_(%ED%85%94%EB%A0%88%EB%B9%84%EC%A0%84_%ED%94%84%EB%A1%9C%EA%B7%B8%EB%9E%A8)#cite_note-1)

**진행 방법**

"빅 브라더"는 리얼리티 텔레비전 쇼로 사람들이 바깥 세상과 고립된 큰 집에서 함께 산다. 그 집안에는 여러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시청자는 계속해서 카메라를 통해 집 내부를 볼 수 있다. 각 시리즈는 약 3개월에 걸쳐 지속 되고 15명 정도 되는 참가자들이 있다. 참가자들은 탈락시킬 한명을 지명한다. 2명이 한꺼번에 탈락 할 수도 있고 드물게는 모두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참가자들은 개인적으로 탈락시킬 사람을 지명하고 그 지명된 사람을 시청자에게 발표한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전화를 통해 누구를 탈락시킬지 투표한다. 참가자들은 그 집에서 탈락되지 않고 최후의 1인이 되는 것이 이 쇼의 최종 목표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최후의 1인은 상금과 차 휴가 등을 상으로 받게 된다.

여러 나라들이 《빅 브라더》의 포맷을 응용할 때 그 나라의 정서에 맞게 형태가 변했지만 일반적인 컨셉은 원작과 같다. 예를 들어 참가자들은 카메라에 그들의 행동이 모두 녹화되는 특별히 설계된 집에서 한정된 생활을 하고 바깥 세계와 연결된 어떤 연락도 허락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서는 각 나라별로 그리고 시즌별로 다르긴 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외부 신문이나 잡지 등을 읽는 것조차 허용 되지 않으며 립스틱이나 아이라이너를 사용하는 행위까지 제약을 두기도 한다. 그래서 초창기 《빅 브라더》는 '생존'과 가까운 분위기였다. 그래서 음식까지 제한을 두고 심지어 고급 물건을 취급하는 것까지 금지 했다. 하지만 최근 시리즈에서는 현대식 집을 제공하고 여러가지 고급 시설을 갖추고 있다. 참가자들은 PD가 지정해 놓은 업무를 해결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PD는 참가자들 사이에서 '빅 브라더'라고 통한다. PD가 주는 일은 참가자들의 협동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EB%B9%85_%EB%B8%8C%EB%9D%BC%EB%8D%94_(%ED%85%94%EB%A0%88%EB%B9%84%EC%A0%84_%ED%94%84%EB%A1%9C%EA%B7%B8%EB%9E%A8)>

빅 브라더 법(big brother 法)'의 뜻과 유래

간단하게 말하면, '빅브라더법'이란 '사생활을 침해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개정을 앞두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빅브라더법'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2007년 6월 22일 법사위를 통과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휴대전화 사용내역은 물론 인터넷 접속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이피 주소와 인터넷 사용기록 등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권단체에서는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구요.

이 법이 개정되면 휴대폰과 인터넷 공간의 일상적인 감청과 검열이 가능하게 됩니다.

원래 '빅브라더(big brother)'라는 용어는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소설 <1984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빅브라더'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사회를 끊임없이 감시하며, 실로 가공할 만한 사생활 침해를 보여줍니다.

'사생활 침해'라는 공통점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을 '빅브라더법'이라고 부르는 것이구요.

인권단체에서 개정을 앞두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반대하는 것도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빅브라더 [big brother]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혹은 그러한 사회체계를 일컫는 말.

사회학적 통찰과 풍자로 유명한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George Orwell, 1903∼1950)의 소설 《1984년》에서 비롯된 용어이다.

긍정적 의미로는 선의 목적으로 사회를 돌보는 보호적 감시, 부정적 의미로는 음모론에 입각한 권력자들의 사회통제의 수단을 말한다.

사회적 환난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도 있는 이 빅브라더는 사실 엄청난 사회적 단점을 가지고 있다.

소설 《1984년》에서 빅브라더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소설 속의 사회를 끊임없이 감시한다.

이는 사회 곳곳에, 심지어는 화장실에까지 설치되어 있어 실로 가공할 만한 사생활 침해를 보여준다.

음모론에 입각하여 재해석하자면, 사회의 희망적 권력체제가 아닌 독점권력의 관리자들이 민중을 유혹하고 정보를 왜곡하여 얻는 강력한 권력의 주체가 바로 빅 브라더의 정보수집으로 완성된다고 할 수도 있다.

과거 빅 브라더의 실체는 매우 비현실적으로 보였지만, 소설 속의 그것과 흡사한 감시체제가 현대에 이르러 실제 사회에서도 실현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경우 국방부의 규모와 맞먹는 국토안보부가 설치되고, 이들의 감시행동을 법적으로 보호해 줄 애국법이 통과된 상태이다.

<http://tip.daum.net/openknow/49838063>

1984년 (소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  |
| --- | --- |
| Question book-4.svg | 이 문서의 내용은 [**출처**](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C%B6%9C%EC%B2%98_%EB%B0%9D%ED%9E%88%EA%B8%B0)**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 [문서를 편집](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1984%EB%85%84_(%EC%86%8C%EC%84%A4)&action=edit)하여, 참고하신 문헌이나 [신뢰할 수 있는 출처](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C%8B%A0%EB%A2%B0%ED%95%A0_%EC%88%98_%EC%9E%88%EB%8A%94_%EC%B6%9C%EC%B2%98)를 각주 등으로 표기해 주세요. [검증](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D%99%95%EC%9D%B8_%EA%B0%80%EB%8A%A5)되지 않은 내용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은 [토론 문서](https://ko.wikipedia.org/wiki/%ED%86%A0%EB%A1%A0:1984%EB%85%84_(%EC%86%8C%EC%84%A4))에서 나누어 주세요. (2013년 7월)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1984_fictious_world_map.png?uselang=ko)

조지 오웰이 공상한 [1984년](https://ko.wikipedia.org/wiki/1984%EB%85%84)의 세계.보라색은 유라시아,분홍색은 오세아니아,초록색은 동아시아, 노란색은 분쟁 지역이다.

《**1984년**》(Nineteen Eighty-Four)은 1949년 출판된 [조지 오웰](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A7%80_%EC%98%A4%EC%9B%B0)의 [디스토피아](https://ko.wikipedia.org/wiki/%EB%94%94%EC%8A%A4%ED%86%A0%ED%94%BC%EC%95%84) [소설](https://ko.wikipedia.org/wiki/%EC%86%8C%EC%84%A4)이다. [1984년](https://ko.wikipedia.org/wiki/1984%EB%85%84)을 [전체주의](https://ko.wikipedia.org/wiki/%EC%A0%84%EC%B2%B4%EC%A3%BC%EC%9D%98)가 극도화된 사회로 상정하고 쓴 미래 소설이다. [올더스 헉슬리](https://ko.wikipedia.org/wiki/%EC%98%AC%EB%8D%94%EC%8A%A4_%ED%97%89%EC%8A%AC%EB%A6%AC)의 《[멋진 신세계](https://ko.wikipedia.org/wiki/%EB%A9%8B%EC%A7%84_%EC%8B%A0%EC%84%B8%EA%B3%84)》와 더불어 이후 [디스토피아](https://ko.wikipedia.org/wiki/%EB%94%94%EC%8A%A4%ED%86%A0%ED%94%BC%EC%95%84)를 다룬 대부분의 예술작품에 영향을 준 원형적인 작품으로 62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이 소설 이후 사회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오웰족'(Orwellian)이라고 부르게 될 정도로 파급력을 가졌다. 작품의 제목인 1984는 작가가 작품을 쓰기 시작한 1948년의 뒷자리 년도를 뒤집은 것이다.

**목차**

  [숨기기]

* [1작품 설명](https://ko.wikipedia.org/wiki/1984%EB%85%84_(%EC%86%8C%EC%84%A4)#.EC.9E.91.ED.92.88_.EC.84.A4.EB.AA.85)
* [2시대상](https://ko.wikipedia.org/wiki/1984%EB%85%84_(%EC%86%8C%EC%84%A4)#.EC.8B.9C.EB.8C.80.EC.83.81)
* [3줄거리](https://ko.wikipedia.org/wiki/1984%EB%85%84_(%EC%86%8C%EC%84%A4)#.EC.A4.84.EA.B1.B0.EB.A6.AC)
* [4오웰의 언어관](https://ko.wikipedia.org/wiki/1984%EB%85%84_(%EC%86%8C%EC%84%A4)#.EC.98.A4.EC.9B.B0.EC.9D.98_.EC.96.B8.EC.96.B4.EA.B4.80)
* [5영향을 준 작품](https://ko.wikipedia.org/wiki/1984%EB%85%84_(%EC%86%8C%EC%84%A4)#.EC.98.81.ED.96.A5.EC.9D.84_.EC.A4.80_.EC.9E.91.ED.92.88)
* [6같이 읽기](https://ko.wikipedia.org/wiki/1984%EB%85%84_(%EC%86%8C%EC%84%A4)#.EA.B0.99.EC.9D.B4_.EC.9D.BD.EA.B8.B0)

**작품 설명**[[편집](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1984%EB%85%84_(%EC%86%8C%EC%84%A4)&action=edit&section=1)]

1949년 6월 8일에 세커 앤드 와버그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으며 탈고는 1948년에 스코틀랜드의 주라 섬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오웰은 아내를 잃고 주라 섬에서 요양중이며 집필에 몰두하고 있었다.

러시아 작가 [자먀틴](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C%9E%90%EB%A8%80%ED%8B%B4&action=edit&redlink=1)의 [우리들](https://ko.wikipedia.org/wiki/%EC%9A%B0%EB%A6%AC%EB%93%A4)(1921년)을 오웰이 [프랑스어](https://ko.wikipedia.org/wiki/%ED%94%84%EB%9E%91%EC%8A%A4%EC%96%B4)판으로 읽은 것은 1946년이었다. 이 작품과 이전에 읽었던 [캐서린 버드킨](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C%BA%90%EC%84%9C%EB%A6%B0_%EB%B2%84%EB%93%9C%ED%82%A8&action=edit&redlink=1)의 [나치의 밤](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B%82%98%EC%B9%98%EC%9D%98_%EB%B0%A4&action=edit&redlink=1)(1937년)을 다시 읽으며 자신의 새 책 '유럽 최후의 인간'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는 출판사의 제안으로 제목을 바꾸기로 했고 분명하지 않은 이유로 제목을 '1984년'으로 바꾸었다.

오웰은 《[동물 농장](https://ko.wikipedia.org/wiki/%EB%8F%99%EB%AC%BC_%EB%86%8D%EC%9E%A5)》처럼 이 소설의 배경 역시 [스탈린](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C%98%A4%EC%8B%9C%ED%94%84_%EC%8A%A4%ED%83%88%EB%A6%B0) 시대의 소련에서 차용했다. [빅 브라더](https://ko.wikipedia.org/wiki/%EB%B9%85_%EB%B8%8C%EB%9D%BC%EB%8D%94)는 스탈린이고 [골드슈타인](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A%B3%A8%EB%93%9C%EC%8A%88%ED%83%80%EC%9D%B8&action=edit&redlink=1)(Goldstein)은 트로츠키다. (트로츠키의 원래 본명이 브론슈타인 Bronstein이기도 하다.) 유라시아, 오세아니아, 동아시아로 구분한 세계의 3대 강국은 유럽-공산권, 영미-서구권, 아시아권으로 나눴는데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을 예상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에 묘사된 사회 분위기는 나치 독일과 소련의 분위기를 차용하여 전체주의적이다.

오웰은 이 소설에서 다층적인 체계를 구성하였다. 윈스턴과 쥴리아가 살아가고 있는 디스토피아적인 세계와 골드슈타인이 쓴 '책'에 묘사된 저항군의 체계와 책의 뒤에 첨부된 '신어의 원리' 등이 그것이다. 오웰은 소설의 전개를 위해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를 치밀하게 구축하고 그것을 붕괴시키기 위해 그 디스토피아를 철저하게 분석한 '책(The Book)'을 썼다. 그리고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신어의 원리'를 통해 묘사하고 있다. 이런 다층적인 체계를 만들어 오웰은 이 어두운 근미래 SF 소설에 극도의 사실감을 불어넣고 있다.

**시대상**[[편집](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1984%EB%85%84_(%EC%86%8C%EC%84%A4)&action=edit&section=2)]

1984년. 세계의 삼대 강국인 **오세아니아**, **동아시아**, **유라시아**, 이 세 나라는 너나할것없이 극단적 전체주의국가이다. 오세아니아는 '영사'(INGSOC - 영국 사회주의의 '신어'적 표현법)를, 동아시아는 죽음 숭배를, 유라시아는 신(新) [볼셰비즘](https://ko.wikipedia.org/wiki/%EB%B3%BC%EC%85%B0%EB%B9%84%EC%A6%98)을 주창하지만 결국 다른것은 이름일 뿐이다.

1950년대, 미국의 대영 제국 합병과 소련의 유럽 병합. 그리고 뒤를 이은 핵전쟁으로 '오세아니아(Oceania)'와 '유라시아(Eurasia)'는 이미 모습을 갖추고 뒤이은 1960년대의 '동아시아(East Asia)'에서는 드디어 오랜 내전이 끝나고 단일 국가가 출범하게 된다. '오세아니아'는 아메리카대륙과 영국, 남부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대륙을, '유라시아'는 러시아와 전유럽을, '동아시아'는 한국, 중국, 일본, 동남아, 티벳, 몽골을 차지한다. 이 삼대 강국은 어떤 두 국가가 동맹하여 다른 한 국가를 공격하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물론 배신과 동맹을 반복하는데다가 '오세아니아'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지리적 이점으로. '유라시아'는 방대한 영토로, '동아시아'는 높은 출생률과 근면한 국민성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끝이 날 수 없다. 이 전쟁의 유일한 목적은 노동력이 만들어낸 모든 재화를 소비하여 인류 역사 불변의 원칙인 불평등을 깨지 않기 위함이다.(작가는 가상의 책 '그 책(The Book)'에서 불평등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 부분부터는 인용하지 않았다.)

주무대인 오세아니아는 내부당원, 외부당원, 그리고 80%가량의 무산계급의 세 계급으로 나뉘는 국가이다. 절대권력을 가진 '당'(The Party)은 전쟁을 관장하는 '평화부'(Ministry of Peace), 사상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를 관리하는 '애정부'(Ministry of Love), 매일 같이 배급량 감소만을 발표하는 '풍요부'(Ministry of Plenty), 모든 정보를 통제,조작하는 [진리부](https://ko.wikipedia.org/wiki/%EC%A7%84%EB%A6%AC%EB%B6%80)(Ministry of truth)의 네 성(省)으로 나뉜다. 성(省)들의 반어법적 이름과 '**전쟁은 평화. 자유는 예속. 무지는 힘.'**이라는 슬로건은 당의 '[이중사고](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C%A4%91%EC%82%AC%EA%B3%A0)'라는 덕목을 대표하는 것이다. 또한 쌍방향으로 음향과 영상이 전달되는 '텔레스크린'(Telescreen)과 마이크로폰, 사상경찰, 헬리콥터, 유년대 등으로 체제전복의 위험이 될 수 있는 외부당원들을 철저하게 감시한다. 동시에 가공인물인 '빅 브라더'에 대한 숭배와 역시 가공인물인 '골든슈타인'(Goldenstien)과 매번 바뀌는, 그러나 절대로 바뀐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 적국에 대한 저주로 인간의 모든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섹스는 아이를 낳는 것을 위해서만 하는 일종의 '전투'이며, 오르가즘을 없애는 것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사상범죄는 사형이나 폭력으로 인한 거짓 자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선 사상범죄자는 그가 존재했다는 모든 흔적이 사라진 후 엄청난 고문에 노출된다. 아예 그의 인간성을 말살해 버린 후 그의 마음까지 세뇌를 시킴으로써 순교자를 철저하게 없애는 것이다.

**줄거리**[[편집](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1984%EB%85%84_(%EC%86%8C%EC%84%A4)&action=edit&section=3)]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Winston Smith)는 오세아니아의 외부당원이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라는 슬로건을 가진 진리성에서 근무하는 그는 당의 위선을 깨닫고 전체주의적인 당에게 저항을 하려는 인물로, 일기를 쓰면서 체제 일탈자가 된다. 우연히 같은 진리성에 근무하는 '줄리아'(Julia)와 당에서 금지하는 연애를 하면서 '**미래를 향해, 과거를 향해, 사고가 자유롭고 저마다의 개성이 다를 수 있으며 혼자 고독하게 살지 않는 시대를 향해, 진실이 존재하고 일단 이루어진 것은 없어질 수 없는 시대를 향해.'** 라고 부르짖으며 당의 전복을 꾀하게 된다. 그러던 도중 우연히 그가 호감을 갖고 있던 내부당원인 '오브라이언'(O'Brien)을 만나게 되어 그 자리에서 오브라이언이 가입한 지하단체인 '형제단'의 소속에 줄리아와 가입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던 사상경찰의 함정에 빠지고 잡혀 애정성에 끌려간 그는 '오브라이언'이 말한 대로 '형제단'이 자신의 자살을 도와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거듭되는 폭력과 거짓 자백 후에 만난 오브라이언은 그를 함정에 빠트리게 한 장본인이었음이 드러나고(그를 고문한것도 오브라이언이다.). 결국 그도 다른 사상범죄인들과 똑같은 단계를 거쳐 '빅 브라더'를 마음 속 깊이 사랑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면서. 조용히 총살형을 기다린다.

**오웰의 언어관**[[편집](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1984%EB%85%84_(%EC%86%8C%EC%84%A4)&action=edit&section=4)]

오웰은 기본적으로 저널리스트였으며 BBC에 입사하여 대 인도 방송을 송출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을 쓸 때부터 부랑자들의 어휘를 기록할 정도로 언어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으니 전체주의의 대중 선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고찰은 충분히 하고있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동물 농장에서 스퀼러가 대중의 기억을 조작하고 일곱 계명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1984년에서는 치밀하게 묘사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신어'(Newspeak)이고 그것을 서술한 부분이 '신어의 원리'이다.

[신어](https://ko.wikipedia.org/wiki/%EC%8B%A0%EC%96%B4_(1984%EB%85%84))는 구어(Oldspeak)를 대체할 언어로 개발된다. 원리는 글의 체계를 단순화 시키고 어휘를 차츰 줄여 사상범죄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사고의 폭을 좁히면 사람들이 광범위한 사고 자체를 할 수 없게되므로 범죄에 대한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신어에는 두 가지 문법적 규칙이 있다.

첫 번째는 어휘의 수를 줄이는 것으로 '춥다(cold)'의 반대인 '덥다(hot)'를 '안(un)'을 붙여 '안춥다(uncold)'로 한다든지, 훌륭하다를 '더(plus)'를 붙여 '더좋다.(plus good)', '더더좋다.(double plus good);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명사 '칼'로 '자르다'를 대신하며, 모든 '명/동사'의 파생어가 변형을 할 때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규칙 또한 포함된다.

이 규칙에서 오웰이 상당한 수준의 언어 지식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오웰은 버마에서도 버마어를 어느 정도 익혀서 현지인들과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스페인에 전투하러 가서도 스페인어를 열심히 배웠다. 그리고 파리에서도 1년 가까이 부랑아 생활을 했으니 그의 국제적 언어감각은 이전부터 마련되어 있었다. 칼로 자르다를 대신한다는 부분에서 오웰이 언어들의 다양한 변이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위치에 따라 단어가 품사를 바꿔가며 활용되는 언어로는 중국어가 대표적인데 표의문자라는 한자의 특성 때문에 그러한 면이 있다. book과 같은 단어는 명사일 때와 동사일 때 용례가 다르다. 이렇듯 그는 영어가 가진 불규칙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어휘의 길이를 줄이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영국 사회주의(England Socialism)를 '영사'(INGSOC)로 부른다든지, 선사(善思, goodthink), 앞에서 말한 네 성을 각각 '평성', '애성', '풍성', '진성'으로 부른다는 것이다. 이유는 '영국 사회주의'라는 것보다 '영사'라는 표현이 더 사고의 폭을 줄이기 때문이다.

이 두 번째 규칙에서 오웰은 [의미론](https://ko.wikipedia.org/wiki/%EC%9D%98%EB%AF%B8%EB%A1%A0)까지 상당히 깊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국제 공산당'(Communist International)은 인류애, 붉은 깃발, 마르크스, 파리 코뮌 등을 연상시키지만 '코민테른'(Comintern)이라는 말은 조직, 기관, 강령만을 연상시킨다고 적었다.

또 그는 단어를 합성함에 있어서 발음을 편하게 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합성어가 언중사이에서 정착되는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발상을 이어나가 개념을 줄이고 말을 빨리할 수 있게끔 한 '신어'야말로 사상통제의 가장 적절한 도구라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신어의 원리'는 하나의 체계적인 언어학 논문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그리고 오웰은 1부에서 '[이분간 증오](https://ko.wikipedia.org/wiki/%EC%A6%9D%EC%98%A4%EC%96%B8%EC%84%A4)'나 '[이중사고](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C%A4%91%EC%82%AC%EA%B3%A0)'를 통한 사고 통제를 보여주고 2부에서 줄리아와 윈스턴의 다정한 대화를 보여주어 언어가 어떻게 사람을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만드는지 극적으로 전달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1984%EB%85%84_(%EC%86%8C%EC%84%A4)>

굿모닝 미스터 오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  |
| --- | --- |
| Question book-4.svg | 이 문서의 내용은 [**출처**](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C%B6%9C%EC%B2%98_%EB%B0%9D%ED%9E%88%EA%B8%B0)**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이 [문서를 편집](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A%B5%BF%EB%AA%A8%EB%8B%9D_%EB%AF%B8%EC%8A%A4%ED%84%B0_%EC%98%A4%EC%9B%B0&action=edit)하여, 참고하신 문헌이나 [신뢰할 수 있는 출처](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C%8B%A0%EB%A2%B0%ED%95%A0_%EC%88%98_%EC%9E%88%EB%8A%94_%EC%B6%9C%EC%B2%98)를 각주 등으로 표기해 주세요. [검증](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D%99%95%EC%9D%B8_%EA%B0%80%EB%8A%A5)되지 않은 내용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은 [토론 문서](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D%86%A0%EB%A1%A0:%EA%B5%BF%EB%AA%A8%EB%8B%9D_%EB%AF%B8%EC%8A%A4%ED%84%B0_%EC%98%A4%EC%9B%B0&action=edit&redlink=1)에서 나누어 주세요. (2013년 11월) |

**굿모닝 미스터 오웰**은 한국 태생의 미국인 [백남준](https://ko.wikipedia.org/wiki/%EB%B0%B1%EB%82%A8%EC%A4%80)이 기획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을 통한 생중계 쇼이다. 이 쇼는 미국 시간으로 [1984년](https://ko.wikipedia.org/wiki/1984%EB%85%84) [1월 1일](https://ko.wikipedia.org/wiki/1%EC%9B%94_1%EC%9D%BC) 정오에 시작되었다. 이 쇼의 이름 〈굿모닝 미스터 오웰〉에는 [조지 오웰](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A7%80_%EC%98%A4%EC%9B%B0)의 소설 《[1984](https://ko.wikipedia.org/wiki/1984%EB%85%84_(%EC%86%8C%EC%84%A4))》의 텔레비전 같은 대중매체에 지배당하며 살 것이라는 내용은 틀렸다는 뜻을 담았다.[[1]](https://ko.wikipedia.org/wiki/%EA%B5%BF%EB%AA%A8%EB%8B%9D_%EB%AF%B8%EC%8A%A4%ED%84%B0_%EC%98%A4%EC%9B%B0#cite_note-.EB.8F.99.EC.95.84_1-1) 〈굿모닝 미스터 오웰〉은 [1988년 서울 올림픽](https://ko.wikipedia.org/wiki/1988%EB%85%84_%ED%95%98%EA%B3%84_%EC%98%AC%EB%A6%BC%ED%94%BD) 예술제를 위한 예비행사로 소개되기도 했다.[[2]](https://ko.wikipedia.org/wiki/%EA%B5%BF%EB%AA%A8%EB%8B%9D_%EB%AF%B8%EC%8A%A4%ED%84%B0_%EC%98%A4%EC%9B%B0#cite_note-.EB.8F.99.EC.95.84_2-2)

[파리](https://ko.wikipedia.org/wiki/%ED%8C%8C%EB%A6%AC_(%EB%8F%84%EC%8B%9C)) [퐁피두 센터](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B%A5%B4%EC%A3%BC_%ED%90%81%ED%94%BC%EB%91%90_%EC%84%BC%ED%84%B0)에서 [요제프 보이스](https://ko.wikipedia.org/wiki/%EC%9A%94%EC%A0%9C%ED%94%84_%EB%B3%B4%EC%9D%B4%EC%8A%A4)의 퍼포먼스가 이루어졌으며, 동시에 [뉴욕](https://ko.wikipedia.org/wiki/%EB%89%B4%EC%9A%95)에서는 [존 케이지](https://ko.wikipedia.org/wiki/%EC%A1%B4_%EC%BC%80%EC%9D%B4%EC%A7%80)가 연주를 시작했다. 두 사람 외에도 [머스 커닝햄](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B%A8%B8%EC%8A%A4_%EC%BB%A4%EB%8B%9D%ED%96%84&action=edit&redlink=1), [샬럿 무어맨](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C%83%AC%EB%9F%BF_%EB%AC%B4%EC%96%B4%EB%A7%A8&action=edit&redlink=1), [로리 앤더슨](https://ko.wikipedia.org/wiki/%EB%A1%9C%EB%A6%AC_%EC%95%A4%EB%8D%94%EC%8A%A8), [이브 몽탕](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B%B8%8C_%EB%AA%BD%ED%83%95) 등의 많은 예술계 사람들이 등장했다. 뉴욕 공영 방송 [WNET](https://ko.wikipedia.org/wiki/WNET) 주조정실에서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편집해 내보냈다. 〈굿모닝 미스터 오웰〉은 [대한민국](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 [KBS TV](https://ko.wikipedia.org/wiki/KBS_%EC%A0%9C1TV)에도 생중계되었고,[[2]](https://ko.wikipedia.org/wiki/%EA%B5%BF%EB%AA%A8%EB%8B%9D_%EB%AF%B8%EC%8A%A4%ED%84%B0_%EC%98%A4%EC%9B%B0#cite_note-.EB.8F.99.EC.95.84_2-2) 이를 계기로 백남준의 이름이 고국인 한국에 알려져 1984년 6월 22일, 34년 만에 대한민국의 초대를 받아 귀국하기도 했다.

<https://ko.wikipedia.org/wiki/%EA%B5%BF%EB%AA%A8%EB%8B%9D_%EB%AF%B8%EC%8A%A4%ED%84%B0_%EC%98%A4%EC%9B%B0>

긍정적 의미로는 선의 목적으로 사회를 돌보는 보호적 감시지만 이 는 사회 곳곳에,  심지어는 화장실에까지

설치되어 있어 실로 가공할 만한 사생활 침해를 보여준다.  음모론에 입각하여 재해석하자면,  사회의 희망적

권력체제가 아닌 독점권력의 관리자들이 민중을 유혹하고 정보를  왜곡하여 얻는  강력한  권력의 주체가  바

로 빅 브라더의 정보수집으로 완성된다고 할 수도 있다. 앞으로 맞이 할  유비쿼터스 시대에 고찰을 해 봐야

할 부분이다.

2007년 6월 22일 법사위를 통과해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휴대전화 감청이 가

능하도록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휴대전화 사용내역은 물론 인터넷 접속지를

추적할 수 있는 아이피 주소와 인터넷 사용기록 등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http://blog.daum.net/chiw0007/12351951>

차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4/4a/Disambig_grey.svg/23px-Disambig_grey.svg.png](https://ko.wikipedia.org/wiki/%EC%9C%84%ED%82%A4%EB%B0%B1%EA%B3%BC:%EB%8F%99%EC%9D%8C%EC%9D%B4%EC%9D%98%EC%96%B4_%EB%AC%B8%EC%84%9C) 불교 용어로서의 차별(差別) 또는 차별상(差別相)에 대해서는 [불교 용어 목록/ㅊ#차별상](https://ko.wikipedia.org/wiki/%EB%B6%88%EA%B5%90_%EC%9A%A9%EC%96%B4_%EB%AA%A9%EB%A1%9D/%E3%85%8A#.EC.B0.A8.EB.B3.84.EC.83.81)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20051129_northlake-il5.jpg?uselang=ko)

[동성애 혐오](https://ko.wikipedia.org/wiki/%EB%8F%99%EC%84%B1%EC%95%A0_%ED%98%90%EC%98%A4)

**차별**(差別)은 [종교](https://ko.wikipedia.org/wiki/%EC%A2%85%EA%B5%90), [장애](https://ko.wikipedia.org/wiki/%EC%9E%A5%EC%95%A0), [나이](https://ko.wikipedia.org/wiki/%EB%82%98%EC%9D%B4),신분, 학력, 이미 [형](https://ko.wikipedia.org/wiki/%ED%98%95)(刑)의 효력이 없어진 [전과](https://ko.wikipedia.org/wiki/%EC%A0%84%EA%B3%BC), [성별](https://ko.wikipedia.org/wiki/%EC%84%B1%EB%B3%84), [성적 지향](https://ko.wikipedia.org/wiki/%EC%82%AC%ED%9A%8C%EC%A0%81_%EC%84%B1), [인종](https://ko.wikipedia.org/wiki/%EC%9D%B8%EC%A2%85), [신체](https://ko.wikipedia.org/wiki/%EC%8B%A0%EC%B2%B4) 조건, 국적, 나이, 출신 지역, [이념](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B%85%90) 및 정견 등의 이유로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수당지급,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고,정치,사회,경제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1]](https://ko.wikipedia.org/wiki/%EC%B0%A8%EB%B3%84#cite_note-1)

**같이 보기**[[편집](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C%B0%A8%EB%B3%84&action=edit&section=1)]

* [임금차별](https://ko.wikipedia.org/wiki/%EC%9E%84%EA%B8%88%EC%B0%A8%EB%B3%84)
* [직업차별](https://ko.wikipedia.org/wiki/%EC%A7%81%EC%97%85%EC%B0%A8%EB%B3%84)
* [남성주의](https://ko.wikipedia.org/wiki/%EB%82%A8%EC%84%B1%EC%A3%BC%EC%9D%98)
* [우생학](https://ko.wikipedia.org/wiki/%EC%9A%B0%EC%83%9D%ED%95%99)
* [인종차별](https://ko.wikipedia.org/wiki/%EC%9D%B8%EC%A2%85%EC%B0%A8%EB%B3%84)
* [일차별](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EC%9D%BC%EC%B0%A8%EB%B3%84&action=edit&redlink=1)
* [동성애 혐오](https://ko.wikipedia.org/wiki/%EB%8F%99%EC%84%B1%EC%95%A0_%ED%98%90%EC%98%A4)

<https://ko.wikipedia.org/wiki/%EC%B0%A8%EB%B3%84>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 **세계인권선언 제2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보여질 수 있는데 정작 신분제도에 의해서 양반들은 일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평민과 천민만 일을 하거나 아예 평민과 천민을 통해서 일을 시키고 있다. **사람이 일하는 데 있어서 양반이든, 평민이든, 천민이 따로 있던가.** 양반도 땅을 가졌으면 자기 손으로 일해야 한다.

- 다산 정약용

네가 백인이건, 흑인이건, 이성애자건, 동성애자건, 양성애자건, 키가 작든 크든, 마르거나 뚱뚱하건, 가난하건 부자이건, **네가 나한테 친절하다면 나도 너한테 친절할 거야.** 그렇게 쉬운거라고.

- [에미넴](https://namu.wiki/w/%EC%97%90%EB%AF%B8%EB%84%B4)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좀 더 평등하다.**

- [조지 오웰](https://namu.wiki/w/%EC%A1%B0%EC%A7%80%20%EC%98%A4%EC%9B%B0), 「[동물농장](https://namu.wiki/w/%EB%8F%99%EB%AC%BC%EB%86%8D%EC%9E%A5)」 중에서

[**1.**](https://namu.wiki/w/%EC%B0%A8%EB%B3%84#toc)**개요**[**[편집]**](https://namu.wiki/edit/%EC%B0%A8%EB%B3%84?section=1)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행위. 차별에 있어 그 집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든 부정적인 영향을 주든 둘 다 차별에 해당되지만, 주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특정 집단에 불이익을 주는 차별이다.  
  
단어의 본뜻은 '차등을 두는 구별'을 의미하는 용어. 하지만 일반적으로 차별 받는 사람들의 실제행동과는 거의 무관하거나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걸쳐 차별이 이루어지는데, 편견을 기초로 한 민족, 집단 또는 그것에 속하는 개인에 대한 차별적 개념이라 행위라고 한다.  
  
이러한 차별은 사회생활 속에서 인종, 민족, 생활양식,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사상, 재능 등을 희생으로 이루어진다. 차별은 시대적 상황으로도 달라지는데, 봉건제도 하에서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서열로 구성된 [신분제도](https://namu.wiki/w/%EC%8B%A0%EB%B6%84%EC%A0%9C%EB%8F%84)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열간의 상호관계가 매우 차별적이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러한 차별제도는 존재하지만, 차별당하는 집단이 설사 동일하다고 해도 근대 이전과 현대는 사회적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 차별이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합리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에서의 흑인차별 등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 등을 통해 사그라들게 되었지만 여전히 각종 차별은 사회에 남아 각종 문제를 일으킨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차별을 '증오범죄' 또는 '[증오발언](https://namu.wiki/w/%EC%A6%9D%EC%98%A4%EB%B0%9C%EC%96%B8)'이라 하여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는 특정 지역이나 계층을 공연히 비방하더라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 [명예훼손](https://namu.wiki/w/%EB%AA%85%EC%98%88%ED%9B%BC%EC%86%90)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특정될 것을' 요하므로 특정 지역이나 계층을 비방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가 너무 크고 막연하여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적용할 수가 없다. 단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대하여 특정 지역이나 계층을 근거로 비방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덕후들은 사회의 쓰레기'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지만, '아무개는 덕후라서 쓰레기'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 직접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차별도 존재한다. 간접적인 차별이란 피차별계층에 대하여 형식상으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다르게 대하지 않지만, 차별당하지 않는 사람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피차별계층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차별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지구](https://namu.wiki/w/%EC%A7%80%EA%B5%AC)에서는 그 어디서나 크고 작게 있다. 인류는 영역 동물이라서 그렇다. 똑같이 영역동물인 [개](https://namu.wiki/w/%EA%B0%9C)나 [고양이](https://namu.wiki/w/%EA%B3%A0%EC%96%91%EC%9D%B4), [원숭이](https://namu.wiki/w/%EC%9B%90%EC%88%AD%EC%9D%B4)도 서로 알력 다툼이 존재하고 자기 영역에 들어온 낮선 개체를 차별한다. 집고양이들 중 집에 새 고양이나 다른 동물이 들어오면 하악질을 하거나 고양이들끼리 서로 죽어라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이다. **그러나**[**인간**](https://namu.wiki/w/%EC%9D%B8%EA%B0%84)**은 지성과 이성을 가진 만큼, 이 차별을 최대한 근절시키려는 노력을 해야한다.**  
  
국가 중에선 [대한민국](https://namu.wiki/w/%EB%8C%80%ED%95%9C%EB%AF%BC%EA%B5%AD), [일본](https://namu.wiki/w/%EC%9D%BC%EB%B3%B8), [대만](https://namu.wiki/w/%EB%8C%80%EB%A7%8C) 등 동아시아와 [미국](https://namu.wiki/w/%EB%AF%B8%EA%B5%AD) 등이 유독 차별이 심하다. [미국](https://namu.wiki/w/%EB%AF%B8%EA%B5%AD)은 인종으로 아직도 은근히 사람을 차별하는 습관이 백인을 중심으로 남아있고, 황인은 흑인에게도 무시당하기 일쑤다. 그나마 [히스패닉](https://namu.wiki/w/%ED%9E%88%EC%8A%A4%ED%8C%A8%EB%8B%89)은 좀 우호적이지만 중국인 흉내 내며 놀리는 건 똑같다. [한국](https://namu.wiki/w/%ED%95%9C%EA%B5%AD), [일본](https://namu.wiki/w/%EC%9D%BC%EB%B3%B8), [대만](https://namu.wiki/w/%EB%8C%80%EB%A7%8C)은 나이와 학벌 등으로 채용이나 결혼시장에서 차별이 매우 강해 문제가 된다. 반면 구 [영국](https://namu.wiki/w/%EC%98%81%EA%B5%AD)령이나 [영연방](https://namu.wiki/w/%EC%98%81%EC%97%B0%EB%B0%A9)은 이러한 차별은 없는 편이다. 물론 백인국가인 [호주](https://namu.wiki/w/%ED%98%B8%EC%A3%BC)나 [뉴질랜드](https://namu.wiki/w/%EB%89%B4%EC%A7%88%EB%9E%9C%EB%93%9C)는 인종 차별은 미국 못지 않다.  
  
반댓말로는 [**역차별**](https://namu.wiki/w/%EC%97%AD%EC%B0%A8%EB%B3%84)이나 **무차별**이란 단어가 있는데, 어째 이 단어들이 좋은 어감으로 쓰이는 경우는 찾기가 힘들다. 전자는 기존의 차별과 정확히 반대의 방향으로 차별이 이뤄지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후자의 경우 말 그대로 차별이 없지만, 대개 뒤에 붙는 단어들이 오히려 부정적인 의미를 강화시킨다. (예: **무차별 학살**)

[**2.**](https://namu.wiki/w/%EC%B0%A8%EB%B3%84#toc)**같이 보기**[**[편집]**](https://namu.wiki/edit/%EC%B0%A8%EB%B3%84?section=2)

* [**장애인 차별**](https://namu.wiki/w/%EC%9E%A5%EC%95%A0%EC%9D%B8%20%EC%B0%A8%EB%B3%84) - 아예 대놓고 **불법으로 규정한다.**
* [편견 및 고정관념](https://namu.wiki/w/%ED%8E%B8%EA%B2%AC%20%EB%B0%8F%20%EA%B3%A0%EC%A0%95%EA%B4%80%EB%85%90)
* [혐오](https://namu.wiki/w/%ED%98%90%EC%98%A4)
* [나이 제한](https://namu.wiki/w/%EB%82%98%EC%9D%B4%20%EC%A0%9C%ED%95%9C)
* [루저의 난](https://namu.wiki/w/%EB%A3%A8%EC%A0%80%EC%9D%98%20%EB%82%9C)
* [사회적 약자](https://namu.wiki/w/%EC%82%AC%ED%9A%8C%EC%A0%81%20%EC%95%BD%EC%9E%90)
* [성차별](https://namu.wiki/w/%EC%84%B1%EC%B0%A8%EB%B3%84)
* [신분제도](https://namu.wiki/w/%EC%8B%A0%EB%B6%84%EC%A0%9C%EB%8F%84)
* [남성혐오](https://namu.wiki/w/%EB%82%A8%EC%84%B1%ED%98%90%EC%98%A4)
* [여성혐오](https://namu.wiki/w/%EC%97%AC%EC%84%B1%ED%98%90%EC%98%A4)
* [역차별](https://namu.wiki/w/%EC%97%AD%EC%B0%A8%EB%B3%84)
* [외모지상주의](https://namu.wiki/w/%EC%99%B8%EB%AA%A8%EC%A7%80%EC%83%81%EC%A3%BC%EC%9D%98)
* [이중잣대](https://namu.wiki/w/%EC%9D%B4%EC%A4%91%EC%9E%A3%EB%8C%80)
* [인종차별](https://namu.wiki/w/%EC%9D%B8%EC%A2%85%EC%B0%A8%EB%B3%84)
* [차별금지법 관련 논란](https://namu.wiki/w/%EC%B0%A8%EB%B3%84%EA%B8%88%EC%A7%80%EB%B2%95%20%EA%B4%80%EB%A0%A8%20%EB%85%BC%EB%9E%80)
* [혐오범죄](https://namu.wiki/w/%ED%98%90%EC%98%A4%EB%B2%94%EC%A3%84)
* [증오발언](https://namu.wiki/w/%EC%A6%9D%EC%98%A4%EB%B0%9C%EC%96%B8)
* [제노포비아](https://namu.wiki/w/%EC%A0%9C%EB%85%B8%ED%8F%AC%EB%B9%84%EC%95%84)
* [호모포비아](https://namu.wiki/w/%ED%98%B8%EB%AA%A8%ED%8F%AC%EB%B9%84%EC%95%84)
* [트랜스포비아](https://namu.wiki/w/%ED%8A%B8%EB%9E%9C%EC%8A%A4%ED%8F%AC%EB%B9%84%EC%95%84)
* [크리스티아노포비아](https://namu.wiki/w/%ED%81%AC%EB%A6%AC%EC%8A%A4%ED%8B%B0%EC%95%84%EB%85%B8%ED%8F%AC%EB%B9%84%EC%95%84)
* [이슬라모포비아](https://namu.wiki/w/%EC%9D%B4%EC%8A%AC%EB%9D%BC%EB%AA%A8%ED%8F%AC%EB%B9%84%EC%95%84)
* [미래소녀](https://namu.wiki/w/%EB%AF%B8%EB%9E%98%EC%86%8C%EB%85%80)
* [편애](https://namu.wiki/w/%ED%8E%B8%EC%95%A0)

[**3.**](https://namu.wiki/w/%EC%B0%A8%EB%B3%84#toc)**생각해 볼 문제**[**[편집]**](https://namu.wiki/edit/%EC%B0%A8%EB%B3%84?section=3)

[취향(preference)](https://namu.wiki/w/%EC%B7%A8%ED%96%A5)과 [**차별(discrimination)**](https://namu.wiki/w/%EC%B0%A8%EB%B3%84)의 차이는 정확히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을 내리는 일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단순히 취향은 [극단적인 경우](https://namu.wiki/w/%EC%B7%A8%ED%96%A5%EC%9E%85%EB%8B%88%EB%8B%A4%20%EC%A1%B4%EC%A4%91%ED%95%B4%EC%A3%BC%EC%8B%9C%EC%A3%A0)를 제외하면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지지만 차별은 위의 링크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양되어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예를 보자.

* 나는 [백인](https://namu.wiki/w/%EB%B0%B1%EC%9D%B8) [남성](https://namu.wiki/w/%EB%82%A8%EC%84%B1)이 아니면 영 내 취향이 아냐.
* 나는 [흑인](https://namu.wiki/w/%ED%9D%91%EC%9D%B8) [여성](https://namu.wiki/w/%EC%97%AC%EC%84%B1)과는 사귀지 않아. 내 취향이 아니기 때문이지.

과연 이것은 취향인가, 차별인가? 개인의 기호에도 차별이 적용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리기란 실로 쉽지 않다. 위 문장을 아래와 같이 단어만 바꿔 보면 매우 일상적인 표현이 된다.

* [배추김치](https://namu.wiki/w/%EB%B0%B0%EC%B6%94%EA%B9%80%EC%B9%98)가 아니면 영 내 취향이 아냐.
* 나는 [아메리카노](https://namu.wiki/w/%EC%95%84%EB%A9%94%EB%A6%AC%EC%B9%B4%EB%85%B8)는 마시지 않아. 내 취향이 아니기 때문이지.

일부 사람들에게는 위의 인종 취향 발언이 [인종 차별](https://namu.wiki/w/%EC%9D%B8%EC%A2%85%20%EC%B0%A8%EB%B3%84)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다른 일부 사람들에게는 그저 [취향](https://namu.wiki/w/%EC%B7%A8%ED%96%A5)일 뿐일 수도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네이버](https://namu.wiki/w/%EB%84%A4%EC%9D%B4%EB%B2%84) 등 한국의 [포털 사이트](https://namu.wiki/w/%ED%8F%AC%ED%84%B8%20%EC%82%AC%EC%9D%B4%ED%8A%B8)에서는 **이와 관련한 글이**[**거의 전무하다**](https://namu.wiki/w/%EA%B7%B8%EB%9F%B0%20%EA%B1%B0%20%EC%97%86%EB%8B%A4). 그러나 해외 사이트에서는 "difference between preference and discrimination"과 같은 제목으로 무수히 많은 글이 쏟아져 나온다. 그동안 한국 네티즌들이 **차별**과 **취향**이라는 단어를 너무 막연하게 써 온 것은 아닐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사회심리학](https://namu.wiki/w/%EC%82%AC%ED%9A%8C%EC%8B%AC%EB%A6%AC%ED%95%99)에서 **차별**은 행동적인 범주에 들어간다고 한다. 즉, 구체적으로 자신의 기호에 맞게 타인을 가려 혜택을 차등화하면 그것이 곧 사람에 대한 차별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취향**은 자신의 내적 심리의 측면이므로 차별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취향**이라는 것에서 말미암아 특정 인종이나 계층, 국가의 사람에게만 호감을 느껴서 실제로 그 부류에게만 호의를 베풀 수도 있다. 그렇기에 심리와 행동의 측면만으로 막연히 차별과 취향을 가리기도 애매하다.

<https://namu.wiki/w/%EC%B0%A8%EB%B3%84>

BDSM의 뜻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다음과 같다.

* 구속과 훈육 (B&D: Bondage & Discipline)
* 지배와 복종 (D&S: Dominance & Submission)
* 가학과 피학 (S&M: Sadism & Masochism)

### 국내의 상황[[편집]](https://namu.wiki/edit/BDSM?section=3)

역시 국내에도 BDSM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 [커뮤니티](https://namu.wiki/w/%EC%BB%A4%EB%AE%A4%EB%8B%88%ED%8B%B0)나 [카페](https://namu.wiki/w/%EC%B9%B4%ED%8E%98) 등을 통해 활동하거나 [트위터](https://namu.wiki/w/%ED%8A%B8%EC%9C%84%ED%84%B0) 등을 통하여 개인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하지만 성에 대한 터부가 매우 강한 국내 현실상 [동성애](https://namu.wiki/w/%EB%8F%99%EC%84%B1%EC%95%A0)보다도 더 마이너한 게 사실이거니와 잊을 만하면 BDSM과 관련된 성범죄 사건들이 터져나오는 실정이라 세간의 인식은 [**변태**](https://namu.wiki/w/%EB%B3%80%ED%83%9C)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거기다 단순히 섹스 혹은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BDSM에 접근하는 **이상한 인간들**[[18]](https://namu.wiki/w/BDSM#fn-18)의 유입으로 인해 여성 유저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19]](https://namu.wiki/w/BDSM#fn-19) 성비불균형이 극심한 상황이다.[[20]](https://namu.wiki/w/BDSM#fn-20) 한 마디로, **여자는 남자가 많은데 괜찮은 사람이 없고 남자는 아예 여자가 없다.**  
  
일단, 자신이 에세머라는 것이 밝혀지면 '[강간](https://namu.wiki/w/%EA%B0%95%EA%B0%84)을 당해도 좋아하지 않냐'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때려도 좋아하니까 넌 좀 맞아도 돼"까지 정말 여러가지 의미로 많이 시달림을 당하게 된다. 물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강간을 당해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건 엄연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딴 말 하는 사람들은 [야동](https://namu.wiki/w/%EC%95%BC%EB%8F%99)을 너무 많이 봐서 현실과 스크린 속 이야기를 구별 못하는 쓰레기라도 봐도 무방하다. **어디까지나 강간 플레이와 강간은 다르다.**

만, SM을 즐기는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일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SM에 관심이 별로 없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그저 간단한 유희 정도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는 중이다. 하지만, 적당한 선을 찾아서 즐길 자신이 없는 사람은 손대지 않는 것이 좋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자유롭게 욕망을 분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절제된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합의점을 찾고 규칙을 만들며 폭주하는 일도 없이 이루어지는 정교한 작업이다.

국내외 [동성애](https://namu.wiki/w/%EB%8F%99%EC%84%B1%EC%95%A0) 커뮤니티에 "BDSM이 [성 소수자](https://namu.wiki/w/%EC%84%B1%20%EC%86%8C%EC%88%98%EC%9E%90)인가?"라고 하면 열에 아홉은 "그저 성 취향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들 중 SM에 대해 공부한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성애자](https://namu.wiki/w/%EC%9D%B4%EC%84%B1%EC%95%A0%EC%9E%90)가 동성애에 대해 많은 오해를 가지듯, 에세머에 대해 그저 맞으며, 때리며, 흥분하는 사람들로 보고 있지만 '정신적으로' 에세머인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서 성적 욕구 없이도 충분히 자신을 노예나 주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60611022200013&input=1196m>

<https://namu.wiki/w/BDSM#rfn-15>

인생은 아름다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46335.html>

<https://namu.wiki/w/%EC%9D%B8%EC%83%9D%EC%9D%80%20%EC%95%84%EB%A6%84%EB%8B%A4%EC%9B%8C(%EB%93%9C%EB%9D%BC%EB%A7%88)>

문화상대주의

https://namu.wiki/w/%EB%AC%B8%ED%99%94%EC%83%81%EB%8C%80%EC%A3%BC%EC%9D%98